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효과분석

최창욱*·김진호**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은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캠프에 참여한 중학생 30명이었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는 갈등해결 유형 변화와 갈등해결기초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와 문항이 사용되었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협력적인 갈등해결유형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격적인 갈등해결유형 수준과 회피적인 갈등해결유형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이 부정적 갈등해결유형인 공격유형과 회피유형의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긍정적 갈등해결 유형인 협력유형의 수준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갈등해결프로그램은 갈등해결기초능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고, 특히 의사결정능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다. 이 결과는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갈등해결기초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들이 갖는 시사점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갈등해결유형, 갈등해결기초능력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I. 서 론

인간은 인간관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청소년기에 그러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Alexander, 2000). 그리고 청소년기의 갈등은 생물학적 성숙, 발달 심리적 특성, 자아정체성 미확립으로 인한 과도한 집단 동일시 경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과정에서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어 정신적 불안과 부적응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성적으로나 재성숙의 원인으로 급격한 신체의 변화와 더불어 감성적, 인지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변화과정 속에 청소년들은 부모, 교사, 동료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그리고 발달심리적 특성상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청소년초기의 자기중심화 경향과 청소년 후기의 이상화 경향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회정의, 도덕,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강한 편견과 지나친 이상주의의 경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 강한 분노를 느끼며 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 대한 강한 동조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이고 당파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러한 생물학적 성숙, 발달심리적 특성, 집단동일시적 경향들이 결국 청소년기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갈등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생산적 결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결기술의 습득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갈등해결능력을 학습하는데 결정적인 시기이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확립된 갈등해결 기술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Downs, 1990; Scales & Leffert, 1999).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갈등해결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은 물론 성인기에 겪게 되는 갈등의 긍정적 해결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Alexander, 2000).

물론 갈등해결 기술이 청소년기에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갈등해결 기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갈등해결 기술은 친구관계 유지의

장애요인이 되며,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비행 및 학교부적응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Dishion et al., 1991) 청소년기에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능력 배양은 중요하다.

Crawford와 Bodine(1996)은 청소년들을 위한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의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①학교분위기 개선, ②학교폭력, 학교부적응 감소, ③학생과 교사의 이해증진 및 생활기술 개발, ④시민의식 증진, ⑤청소년의 갈등해결에 대한 책임성 증진, ⑥유용한 방과후 프로그램, ⑦학습기초기술인 잘 듣기(listening),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증진, ⑧문화다양성 이해, ⑨성인이 지원할 수 없는 청소년문제 해결 등이다.

최창욱·권일남(2004)의 갈등해결 전문가를 대상으로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조사한 결과 ①갈등의 본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 ②개인 상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 함양, ③평화적 관점의 갈등해결유형 견지, ④모든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필수 프로그램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프로그램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1960년대에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 흡수되어 실행되기도 하였지만(하윤영, 2005), 청소년갈등해결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이 학교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일부 부분적으로 첨가되거나,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와 같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초기수준의 갈등해결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의 부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갈등해결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며, 단지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일지를 작성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변화양상을 주관적으로 체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갈등해결능력 중 어떠한 영역을 향상시켜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갈등해결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갈등해결유형 변화와 갈등해결기초능력 변화를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효과분석 선행연구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주로 갈등해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 비폭력주의자들, 반핵주의자들, 법률가들, 교육 및 심리학자들 등 대략 5가지 유형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다(Petrone, 1999).

갈등해결프로그램은 1960년대 청소년 Peacemaker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학교청소년들에게 갈등의 본성, 협상전략, 갈등해결전략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Petrone, 1999). 그리고, 갈등해결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8년도 콜럼비아대학의 Deutsch교수가 고등학교에서 대안교육으로 갈등해결교육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청소년들의 갈등조절능력이 향상되었고, 사회적 지지를 증대시켰으며, 갈등으로 인한 희생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Deutsch(1993)에 의하면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화나 절망 등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갈등해결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Petrone(1999)은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갈등해결유형을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갈등해결유형 즉 타협이나 협상유형을 더 높게 나타내었다. Alexander(2000)도 갈등해결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학생들의 변화양상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갈등해결프로그램 참여 후 학생들의 갈등해결유형이 더욱 협력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mson(1999)은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갈등해결프로그램의 질적수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갈등해결에 관한 큰 축제나 이벤트 등의 외부적 요소가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갈등해결프로그램 자체의 희귀성으로 인해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심리적 연구에서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일단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이희경(1989)은 역할놀이 훈련이 갈등해결유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역할놀이 후 청소년들의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이 증가하고 능동적 갈등격화방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역할획득의 기회가 생겨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신념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역할갈등과 가치갈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상무(1999)는 심리극 집단상담이 여고생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극 집단상담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갈등완화방식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즉, 심리극 집단상담은 수동적 갈등완화방식과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의 구체적 행동양식의 사용량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프로그램

1) 연구대상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효과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캠프에 참여한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캠프는 2005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파주 흥원연수원에서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한 1명을 제외한 29명이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55.2%, 여자 청소년이 44.8%이었고, 연령은 12세 6.9%, 13세 41.4%, 14세 37.9%, 15세 13.8%이었다. 학업성적은 상위권이 68.9%, 중위권 10.3%, 하위권 20.6%이었다. 가정형편은 중류층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상류층 27.6%, 하류층 13.7%의 순이었다.

2) 프로그램

갈등해결 리더십캠프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가 2005년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갈등해결과 또래중재 이해, 평화 개념과 관점 이해, 갈등 이해, 갈등분석, 의사소통, 의사결정, 또래중재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적용된 갈등해결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일	시간	주 제	내 용
1일	12:00-13:00	도착 및 집결	오리엔테이션
	13:00-15:00	갈등해결과 또래중재란?	또래중재란 무엇인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 공유하기, 진행규칙정하기
	15:00-17:00	갈등이해 I	갈등의 개념, 원인과 종류 이해
	17:00-18:00	함께 배우는 평화	평화 개념과 관점, 갈등해결과 예방을 위한 평화감수성 훈련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갈등이해 II	갈등해결 관점, 편견과 선입견, 차이차별, 분단된 한국에서의 평화적 갈등해결 이해하기
	21:00-22:00	영상물 시청	영상으로 알아보는 통일
2일	08:00-09:00	아침식사 및 산책	
	09:00-10:30	또래중재 I	중재의 원칙과 방법 이해
	10:30-12:30	갈등분석	갈등분석의 원칙과 방법, 적용(원하는 것, 관심사 찾기, 태도 행동이해하기)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의사소통 I(듣기)	적극적 듣기, 의사소통의 필터 이해하기, 열린질문 이해하기
	15:30-16:30	의사소통 II(말하기)	나전달, 가시빼기, 강한감정 마주하기, 바꾸어말하기
	16:30-18:00	자연에서 함께하기	자연과 하나되고, 친구와 하나되고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의사결정방법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방법 이해하기	
21:00-23:00	별을 헤며	야외놀이	
3일	08:00-09:00	아침식사 및 산책	
	09:00-10:00	또래중재 II	중재자의 자세 및 기술
	10:00-12:00	또래중재 III	또래중재의 적용 및 실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평화리더 씨앗찾기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청소년들의 자기 전망 찾기, 평화리더로서의 나의 미래 찾기
	15:00-	닫는 마당	수료증 수여, 해산식 및 출발

2. 조사도구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효과분석 조사도구는 갈등해결유형 조사도구와 갈등해결 기초능력 조사도구로 구성하였다. 단순하고 명료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창욱·권일남(2004)이 사용한 조사도구에서 핵심적인 설문문항을 추출하였다. 핵심적인 설문문항의 추출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치가 높은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문항기술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걸쳐 갈등해결관련 프로그램 및 이론전문가 5인과 청소년학 전문가 3인, 통계관련 전문가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하였다.

1) 갈등해결유형 조사도구

갈등해결유형 조사도구는 최창욱·권일남(2004)이 사용한 청소년 갈등해결유형 조사도구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치가 높은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최창욱·권일남(2004)은 Rubenstein과 Feldman(1993)의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Measure'를 바탕으로 Alexander(2000)가 새롭게 개발한 '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CRM:FPC)'를 변안한 것으로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갈등해결유형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창욱·권일남(2004)이 개발한 갈등해결유형 조사도구 35문항 중 협력유형 5문항, 공격유형 5문항, 회피유형 5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추출을 위해 학교CA 시간을 활용하여 갈등해결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 8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모두 .5를 상회하고, 또 상위 5위안에 포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총 15문항으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협력유형 .77, 공격유형 .76, 회피유형 .50이었다.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갈등해결유형 조사도구

갈등해결유형	내 용
협력유형	함께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음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려 노력함
	갈등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지 생각함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함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 함
공격유형	화내고 그 자리를 벗어남
	말이나 행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함
	비꼬는 투로 말함
	냉담한 태도를 취함
	그 친구를 무시함
회피유형	갈등이 지나가길 바라며 아무 말 하지 않음
	갈등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회피함
	조용히 마음속으로 화를 식임
	내 주장을 포기함
	내 감정을 좀처럼 말하지 않음

2) 갈등해결기초능력 조사도구

갈등해결기초능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갈등해결프로그램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최창욱·권일남(2004)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갈등해결기초능력을 갈등이해능력, 자기존중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은 최창욱·권일남(2004)이 개발한 갈등해결기초능력 조사도구 중 예비조사결과 요인적재치가 높은 순서대로 3개의 문항을 각 하위영역별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추출된 문항은 모두 요인적재치가 .5를 상회하였으며,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인간관계능력 .67, 의사소통능력 .60, 문제해결능력 .73, 의사결정능력 .81이었다.

갈등이해능력은 갈등해결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진이 3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갈등해결전문가의 안면타당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70이었다. 그리고, 자기존중능력은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S: Self-Esteem Scales)에서 자기존중과 관련된 3개의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78이었다.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3> 갈등해결기초능력 조사도구

갈등해결기초능력	내 용
갈등이해	갈등의 본성(자연스러움)
	갈등해결방법 이해
	갈등 대처에 자신감
자아존중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인간관계	친근한 성품
	좋은 매너
	타인에 호의적
의사소통	타인의 가치인정
	타인의 말 경청
	타인의 요구 잘 고려하고 수용
문제해결	목표설정을 잘함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효과적 활용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음
의사결정	재치있는 일 처리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 발휘
	실수를 잘 수습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조사는 2005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캠프가 진행되는 경기도 파주 흥원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조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똑같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설문문항은 동일하였으며, 반복조사로 인한 이월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후조사의 문항배열을 달리하여 조사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 1명을 제외한 29명의 조사자료는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5로 통계처리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효과분석

1. 갈등해결유형 수준 변화에 대한 효과

갈등해결프로그램 참가 전·후 갈등해결유형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협력유형 수준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평균이 16.48,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평균이 18.2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공격유형에 있어서는 사전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이 13.21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회피유형에 있어서는 사전검사 평균이 13.03, 사후검사 평균이 13.17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 협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갈등해결유형 수준의 사전·사후 평균비교(N=29)

갈등해결유형	사전검사		사후검사		t-value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협력유형	16.48	3.58	18.21	3.09	-4.069	.000
공격유형	13.21	3.38	13.21	5.20	.000	1.000
회피유형	13.03	2.80	13.17	3.99	-.252	.803

2. 갈등해결기초능력 변화에 대한 효과

1) 갈등해결프로그램 전·후 갈등해결기초능력 변화

갈등해결프로그램 참가 전·후 갈등해결기초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갈등해결기초능력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평균이 62.86,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평균이 66.10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갈등해결기초능력 사전·사후 평균비교(N=29)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value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갈등해결기초능력	62.86	7.65	66.10	8.00	-3.073	.005

2) 갈등해결프로그램 전·후 갈등해결기초능력 하위영역 변화

갈등해결프로그램 참가 전·후 갈등해결기초능력 하위영역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갈등해결기초능력 하위영역 중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사전검사 평균이 10.03, 사후검사 평균이 11.07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한편 갈등이해 능력, 자기존중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평균값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위하여 적용된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갈등해결기초능력을 상승시켰으나, 하위영역 중에서는 의사결정 능력 상승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표 6> 갈등해결기초능력 하위영역의 사전·사후 평균비교(N=29)

갈등해결 기초능력	사전검사		사후검사		t-value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갈등이해	10.41	2.03	10.83	2.65	-.708	.485
자기존중	10.72	1.96	11.24	1.81	-1.578	.126
인간관계	9.79	1.78	10.34	2.11	-1.813	.081
의사소통	11.45	1.82	11.76	1.77	-1.055	.300
문제해결	10.45	1.92	10.86	2.23	-1.419	.167
의사결정	10.03	2.08	11.07	2.02	-3.775	.00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를 갈등해결 유형의 변화와 갈등해결기초능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캠프형 2박 3일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단일집단 사전사후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갈등해결유형은 협력유형, 공격유형, 회피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으며, 갈등해결기초능력은 갈등이해능력, 자기존중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등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해결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협력적인 갈등해결유형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격적인 갈등해결유형 수준과 회피적인 갈등해결유형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이 부정적 갈등해결 유형인 공격유형과 회피유형의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긍정적 갈등해결 유형인 협력유형의 수준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갈등상황이 발생하

였을 경우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더욱 잘 이해하려 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하며,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갈등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등 협력적인 갈등해결 노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이 긍정적 갈등해결유형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갈등해결유형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갈등해결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갈등해결기초능력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은 갈등해결기초능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갈등해결프로그램이 갈등해결기초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한 결과로서, 갈등해결프로그램이 갈등해결기초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갈등해결기초능력 하위요소 중 의사결정능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고, 다른 능력에 있어서는 평균값의 상승을 가져 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프로그램으로서의 한계라 보여진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부가하여 향후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수많은 갈등해결프로그램 중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자체개발한 캠프형 단기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갈등해결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해결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의 갈등해결 유형과 갈등해결기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갈등해결프로그램 종료직후에 사후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이후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갈등해결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갈등해결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청소년의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외생변수들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법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참여관찰법과 같은 질적연구방법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갈등해결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무(1999). 심리극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아강도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1989). 역할놀이 집단상담을 통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변화.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창욱·권일남(2004). 청소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하윤영(2005).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갈등해결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exander, K. L.(2000). *Prosocial behavior of adolescence in work and family life :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parents and pe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Ohio State University.
- Crawford, D. & Bodine, R.(1996).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 A Guide to Implementing Programs in Schools, Youth-Serving Organizations, and Community and Juvenile Justice Settings*.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 Deen, M. Y.(2000). Differences in the Solution-Oriented Conflict Style of Selected Groups of 4-H Youth Development Volunteer Leader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tion* 38(1). [On-line] Available : <http://www.joe.org/joe/2000february/rb5.html>.
- Deutsch, M.(1993). Educating for a peaceful world. *American Psychologist*, 48, pp. 510-517.
- Petrone, L. M.(1999).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in relation to gender*. doctoral dissertation(Ph. D). Columbia University.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s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ott, D.(2003). *Social Competence. Program Outcomes for Youth*. [On-line]

Available : http://ag.arizona.edu/fcr/fs/nowq/social_comp.html

- Thompson, N. A.(1999). *The impact of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on participating students and their families : a qualitative case study*. doctoral dissertation (Ph. D). Ohio state university.
- Van Slyck, M., Stern, M., & Zak-Place, J.(1996). Promoting optimal adolescent developmen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training, and practice: An innovative approach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pp. 433-461.
- Downs, C.(1990). The social biological constructs of social competence. In T. Gullotta, G. Adams, and R. Montemayor(Eds.),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pp.43-94). Newbury Park, CA:Sage.
- Scales, P., & Leffert, N.(1999). *Developmental assets: A synthesis of the scientific research on adolescent development*.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Dishion, T., Patterson, G., Stoolmiller, M., & Skinner, M.(1991).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early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72-180.

ABSTRACT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Youth Conflict Resolution Programs(YCRP)

Choi, Chang-Wook* · Kim, Jin-Ho**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Youth Conflict Resolution Program(YCRP). The objectives were 1) to analyze the effects on the Conflict Resolution Styles(CRS) of YCRP, 2) to analyze the effects on the Conflict Resolution Basic Skills(CRBS) of YCRP, and 3) to draw implications for youth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program, and continuous researches.

CRS Scale was consisted of 15 items(per 5 items on compromise style, attactive style, and avoidance style). And CRBS Scale was consisted of 18 items(per 3 items on conflict understanding, self identification, human relationship,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skill).

Data were collected from 29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all participated in YCRP Leadership Camp(22-24 July, 2005). The SPSS program for window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or this study. The statistical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was paired sample t-tes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YCRP had positive effects on compromise style only in the CRS and had no effects on attactive and avoidance style.
2. YCRP had positive effects on conflict basic skills.

*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3. Therefore it is need to develop and giv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YCRP. And continuous research activities should be conducted for more advanced and practical YCRP.

Key Words : youth conflict resolution program, conflict resolution styles,
conflict resolution basic skills

투고일 : 3월 27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20일